



## 올림픽서 황제의 샷 볼수 있을까

우즈 "골프세계화... 정식 종목 채택엔 출전"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출전하고 싶다”

골프가 2016년 하계올림픽의 유력한 정식 종목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에 머물고 있는 우즈는 12일(이하 한국시간) “5년 뒤 은퇴하지 않고 좋은 몸상태를 유지한다면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1975년 생인 우즈는 2016년에 41세가 된다. 우즈는 “골프는 세계화된 스포츠이고 훨씬 전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야 했다”며 “골프가 올림픽에 들어간다면 현재 골프 붐이 일고 있는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차례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도 “우리(골프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정말 멋지지 않겠는가?”라며 골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지지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추가 정식 종목을 추천하며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

### 황제 벌금형... 사실 아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경기위원을 비난했다가 벌금을 물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는 12일(이하 한국시간) 기자들에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전날 PGA 투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벌금부과를 방해했다고 경기위원을 비난

한 우즈에게 PGA 투어가 벌금을 매길 것이라고 전했다. 타이 보토 PGA 투어 대변인도 “PGA 투어는 우즈의 발언을 두고 제재할 것인지 의논한 적이 없으며 AP기자가 듣고 쓴 내용은 부정확했다”고 해명했다. 보토 대변인은 이어 “우즈가 한 말도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거나 험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데...

타이거 우즈(미국)가 1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연습라운드 첫홀에서 샷하기 전 치켜든 자신의 클럽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 아기 호랑이들의 무서운 질주

# 야구 볼맛 나네



- ▶ 양현종 롯데전 약점 딛고 시즌 8승 챙겨
- ▶ 안치홍 두자릿수 홈런... 연승행진 힘보태



‘아기 호랑이’들의 성장세에 1위 KIA 팬들의 즐거움이 두 배다. 마운드의 막내 양현종은 1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과3분의1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8승을 챙기며 팀 10연승의 주역이 됐다. 타선의 막내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은 두자릿수 홈런으로 KIA의 ‘한방 패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현종은 8승으로 좌완 에이스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속살의 시간도 있었다. 6월1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시즌 6승을 거둔 이후 세 경기에서 8.59의 평균자책점으로 부진했다.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던 양현종은 올스타전 참가 이후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달 29일 롯데와의 사직경기에서 3과3분의2이닝 동안 4실점 하며 무너졌다. 그만큼 후반기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일 LG와의 잠실경기에서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됐다. 절치부심 양현종은 8이닝 2실점의 호투로 51일만에 승을 신고했다. 11일에는 올 시즌 자신에게 2패를 안겨준 롯데를 상대로 실속전을 받으며 2연승을 달렸다. 양현종의 2연승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올 시즌 처음 풀 시즌을 소화하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큰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다. 특히 약점을 보여왔던 롯데전에서 직구 위주의 피칭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며 경계적인 투구를 했다. 7과3분의1이닝을 지키며 10개의 탈삼진을 뽑은 양현종은 사사구 없이 시즌 초반 보여줬던 공격적인 피칭을 다시 보여줬다. 개막전 엔트리 합류여부도 불투명했던 안치홍은 신인 답지 않은 과감한 플레이로 고졸 신인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며 이어, 올스타전

최연소 홈런과 MVP의 영예까지 누렸다. 폭발적인 파워를 바탕으로 터트린 홈런갯수는 12일 현재 14개. 프로야구 역사상 10대선수가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이는 안치홍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팀내에서도 홈런부문 4위를 달리고 있다. 안치홍의 홈런은 4호까지 모두 좌월홈런이었다. 우타자인 만큼 끌어당겨 만든 홈런이었다. 의도적으로 밀어쳐 홈런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자 큰 욕심을 버렸었다. 올스타전 홈런으로 자신감을 얻은 안치홍은 지난 5일 LG 에이스 봉준근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트렸다. 6일에는 우측 플레어를 맞추는 홈런으로 타고난 힘을 과시했다. 보이지 않는 사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안치홍은 수비에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루를 굳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2할3푼대에 머물고 있는 타율은 안치홍이 풀어야 할 숙제다. 많은 팬들은 고등학교 무대를 평정했던 두 선수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올 시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양현종은 지난해 컨트리 난조와 경험부족으로 5.83의 평균자책점으로 5패5홀드에 그쳤던 미완의 대기였다. 안치홍은 시범경기에서 미숙한 수비와 0.073의 타율로 자존심을 구겼던 투기였다. 시련과 경험속에 두 ‘아기 호랑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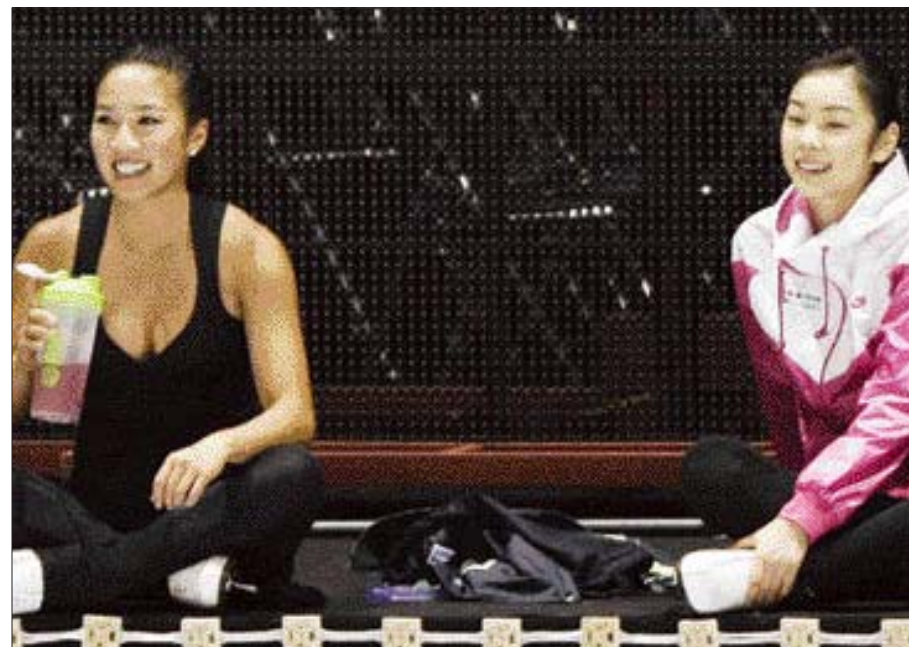


## “영화같은 아이스쇼 기대하세요”

피겨퀸 김연아 ‘아이스 올스타즈’ 멋진 공연 약속

“모든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꾸미겠습니다”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삼삼 애니콜★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14-16일·올림픽공원 제1체육관)를 앞두고 환상적인 아이스쇼 무대를 약속했다. 김연아는 1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진행된 아이스쇼 리허설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공연을 하거나 경기를 펼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번 아이스쇼를 통해 많은 팬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공연하게 돼 긴장이 더 되고 느낀도 다르다”라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춰 연기하면 멋진 공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이스쇼의 특징에 대해선 “지난 4월 아이스쇼가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쇼는 멋진 영화 같은 무대감이 느껴지는 공연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연아는 특히 생애 처음 같은 무대에 오르게 된 자신의 ‘피겨 우상’ 미셸 콰인(미국)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김연아는 “그동안 콰인 두 차례 정도 만났는데 공연은 처음”이라며 “항상 준비된 선수다. 오랫동안 아이스링크를 떠나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 가까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다”라고 감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쇼에는 콰인 아니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나온다. 개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군무가 펼쳐지는 오프닝과 피날레도 기대된다”라며 “팬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둔 심정에 대해선 “올림픽 시즌이라고 해서 특별히 긴장하지는 않는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라운드 시리즈도 치러야 한다”라며 “올림픽은 물론 그라운드 대회도 항상 최고의 프로그램을 연기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삼삼 애니콜★하우젠 아이스 올스타즈 2009 미디어 공개 리허설에서 김연아와 미셸콰인이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